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100년 전 1.9km에 걸친 물길 확보하는 대규모 토목공사

(12회) 천제연 관개수로...자연환경 극복 벼농사 일궈내

데스크승인 2013.04.07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제주도의 지표는 물 빠짐이 좋은 다공질 화산토여서 논농사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제주도세요람'에 보면 1938년 당시 총 경지면적 9만1706정보(910km²) 가운데 논은 907정보(9km²)로 1%에 불과했다. 한경면 용수리 등에서 밭벼(산디)를 재배했지만, 찰기나 맛은 논벼에 떨어진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1.9km에 이르는 긴 물길을 조성한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 관개수로는 벼농사가 부적합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선조들의 지혜와 땀이 배어있다.

1901년 천주교인과 주민들이 충돌한 '이재수의 난'으로 대정군수 직에서 파면 당한 채구석(1850~1920)은 중문에 살게 되자 '천제연 물을 이용해 논을 만들면 만인(萬人)이 살 수 있을 것'

이라며 현장 답사를 벌이고 수로를 계획했다.

1906년 착공해 1908년까지 3년에 걸쳐 완공한 수로는 천제연 일대 불모지(현 중문관광단지)를 옥토로 바꾸어 놓았다.

약 5만평(17만㎡) 규모의 논이 들어서면서 당시 중문은 쌀농사의 주산지로 떠오르게 된다.

채구석이 주창해 이태옥, 이재하가 참여하면서 이 3인은 공동으로 수주(水主)가 됐다.

천제연의 낙수를 끌어 오기 위해 지형이 험한 절벽과 156m에 달하는 암반지대를 뚫고 물길을 만드는 것은 난공사였다. 수로는 지형에 따라 넓이가 1~2m, 깊이는 0.5~3m로 설치됐다.

중문·창천·감산·대포리 주민들이 동원된 대규모 공사는 곡괭이와 정으로 암벽을 깨고 물골을 냈다. 일본에서 곡괭이를 배에 가득 싣고 올 정도로 많은 인력이 동원됐다.

단단한 암반지대는 화약을 화포에 넣어 바위를 부수고 뚫었다는 얘기도 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화약을 구하기 어려워 선조들은 물리법칙을 이용하는 지혜를 짜냈다.

암반 위에 장작을 쌓아 불을 붙여 돌을 달구었고, 소주 원액을 부어 더욱 뜨겁게 가열한 후 일정 시간이 흐르면 찬물을 끼얹었다.

열기에 팽창된 바위는 차가운 물로 갑자기 수축돼 금이 짹짹 가면서 갈라졌다. 약 100년 전 팽창과 수축이라는 과학 원리를 이용해 단단한 암반을 깬 것이다.

첫 공사 구간은 천제연 1단 폭포에서 베릿내오름(성천봉)을 돌아 동쪽으로 뻗어 제주국제평화센터까지 이르렀다. 가장 힘들었던 난공사는 폭포 내 창구목과 화포목으로, 지금도 그 유허가 남아 있다.

2차 공사는 천제연 2단 폭포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옛 너베키 지경)까지 구간이다. 1917년부터 1923년까지 시행돼 약 2만평(7m²)의 논이 추가로 개척됐다.

채 군수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위치에 따라 1차 구간은 '웃골 수로', 2차 구간은 '알골 수로'라 불려졌다.

수로 건설 후 주민들은 '성천답회(星川沓會)'를 조직해 물을 관리했다. 물을 고르게 분배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자로 '수감(水監)'을 두었고, 수고비로 1년에 논 한마지기(약 200평)의 쌀을 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개척한 농경지는 60년이 넘도록 쌀을 생산했다. 관개수로와 논은 1971년 중문관광단지 지정되면서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됐다.

주민들은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건립한 수로 부지와 시공물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채 군수의 공적비는 천제연 폭포 입구(1958년)와 천제연 3단 폭포(2003년)에 세워졌다. 발농사에 의존해 식량을 구했던 것에서 수로와 옥답을 만들어 쌀농사를 짓게 해준데 대한 주민들의 고마움이 담겨 있다.

문화재청은 천제연 관개수로를 자연환경을 극복한 도민들의 생활상과 제주의 농업환경을 전해주는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평가, 2005년 등록문화재 제156호로 지정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